

지방의원 해외연수(일본) 귀국보고서



서대문구의회

□ 목 차 □

I . 해외연수계획

1. 연수목적	2
2. 연수개요	2
3. 주요 방문도시 및 시설	2
4. 연수단 구성	2
5. 연수 세부일정	3

II . 방문도시 일반현황

1. 북해도	3
2. 삿포르	5
3. 오타루	5

III . 주요연수 내용

1. 북해도 구도청사	6
2. 삿포르 이모저모	7
3. 오토리 공원	10
4. 오타루 이모저모	11
5. 오타루 운하	14
6. 맥주 박물관	15
7. 노보리 벳츠 지옥계곡	16
8. 도야호수	17

IV . 연수후기

18

Ⅰ. 해외연수계획

1. 연수목적

2012년도 서대문구의회 의원 국외연수 계획에 따라 우리 구 보다 앞서 문화 · 관광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를 비교시찰 함으로써 홍제천, 독립문, 형무소역사관 등 우리 구 문화 · 관광 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폭넓은 견문과 전문지식을 함양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 으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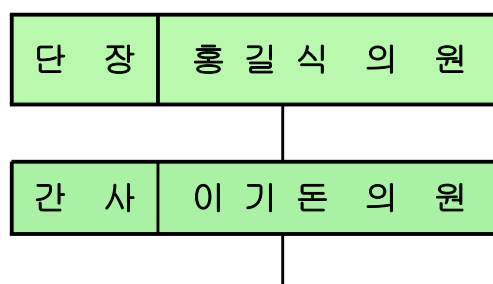
2. 연수개요

- ☐ 시찰기간 : 2012. 8. 27(월) ~ 8. 30(목) 【3박 4일】
- ☐ 시찰국가 : 일본(북해도 일원)
- ☐ 참여인원 : 6명(의원4,공무원2)

3. 주요 방문도시 및 시설

- ☐ 삿포르 시 : 구도청사, 맥주박물관, 오도리 공원
- ☐ 오타루 시 : 시청, 수도국, 오타루운하

4. 연수단 구성 【총 6 명 - 의원 4명, 직원 2명 】



분담 업무	의 원	수 행 직 원
삿포르시 문화관광자원 관리 및 활용실태 파악	홍길식, 윤유현	도부돌
오타루시 문화관광자원 관리 및 활용실태 파악	이기돈, 백인기	고정식

5. 여행 세부일정

월/일	지역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8.27 (월)	인 천 삿뽀로	08:00 10:15 12:55 16:00	인천공항 집결 인천공항 출발 북해도 신치토세 공항 도착 지옥온천	
8.28 (화)	오타루	10:00 12:00 14:00	도야호수 삿뽀로~오타루 도로시찰 오타루 수도국(운하)	
8.29 (수)	삿뽀로	10:00 14:00 17:00	북해도 구도청사 삿뽀로 맥주박물관 오도리 공원	
8.30 (목)	삿뽀로 인 천	14:30 17:30	삿뽀로 출발 인천공항 도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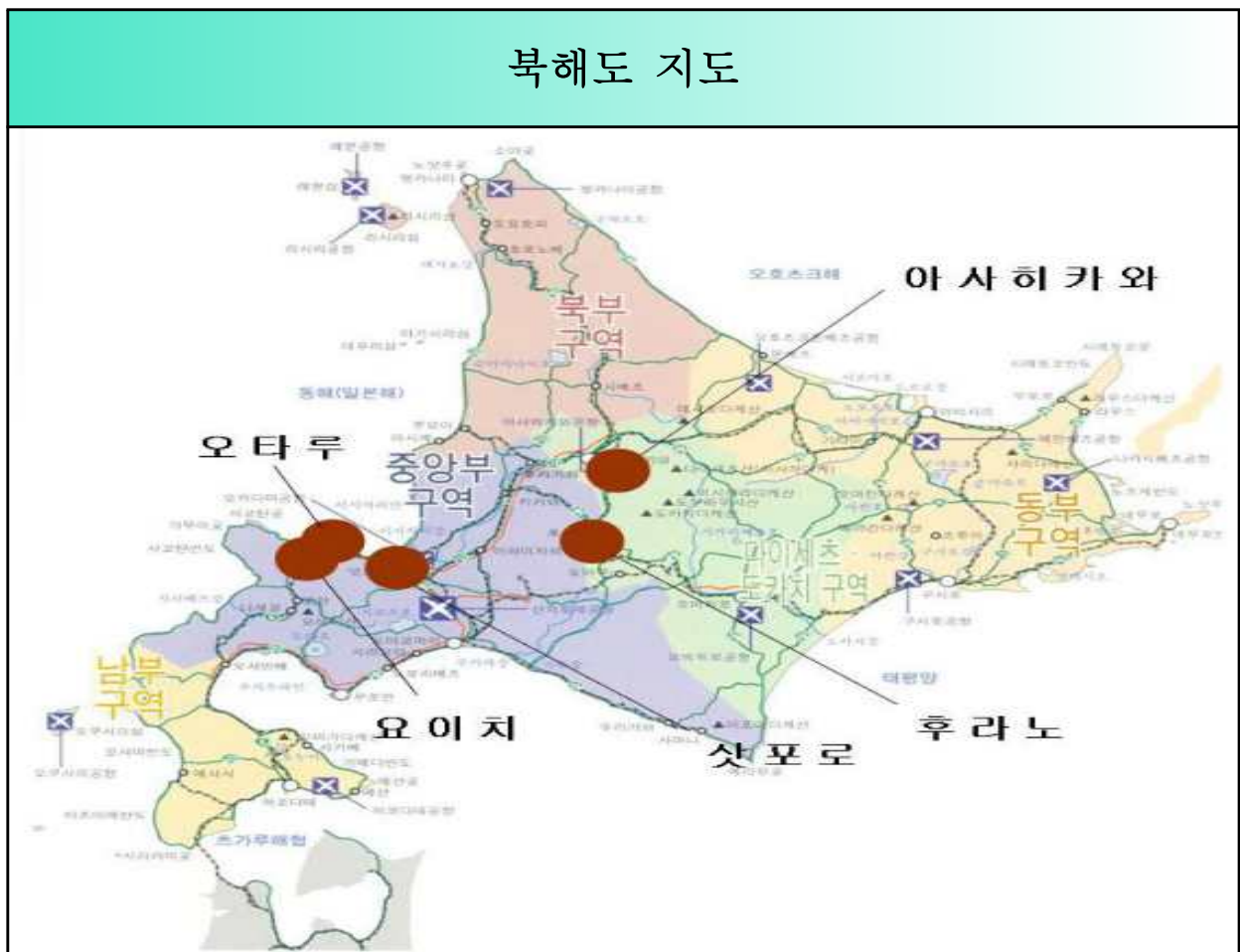
II. 방문도시 일반현황

1. 북해도(北海道-홋카이도)

일본열도 구성의 4개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큐슈(九州), 홋가이도(北海道)] 큰 섬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하며 거의 우리나라 남한 땅 만한 면적으로 일본 전체 국토의 22.1%를 차지하며, 연평균기온 6~10도정도 이며 혼슈(本州)같은 장마나 태풍은 거의 없음. 인구는 약562만 명이며 삿뽀로에 180만 명 정도가 집중 거주하고 있음.

서쪽으로 동해, 북쪽으로 오츠크 해, 동쪽과 남쪽으로 태평양에 접해 있다. 몇몇

작은 섬과 함께 행정상 도(道)를 이루며, 홋카이도의 특색은 한랭한 기후와 새로 형성된 산과 화산들이다. 오랫동안 토착민족인 아이누족의 터전이었으며 일본인들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에조지[蝦夷地]라고 불렀던 이 지역을 1869년 홋카이도라고 부르면서부터였다.



2. 삿포로 시(札幌)

삿포로 시(札幌市)는 일본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정치, 경제의 중심 도시이다. "삿포로"라는 지명은 아이누어의 "삿 포로"(サッ・ポロ, Sat poro, '건조하고 넓은 땅'), "사리 포로 벤"(サリ・ポロ・ペッ, Sari poro pet, '큰 습지가 있는 곳') 등에서 유래했다. 아무도 없는 곳에 홋카이도 개척의 거점으로서 미국식의 계획 도시를 건설했다.

삿포로 도시건설은 1869년에 착수 1886년에 도청소재지가 설치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1972년 동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성장하였다. 매년 2월에 오도리 공원과 스스키노를 비롯한 시내 전역에서 열리는 삿포로 눈 축제는 눈을 사용해서 세계의 유명한 건물이나 인물 상을 만들어 전시하는 축제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3. 오타루 시 [Otaru, 小樽]

동해의 이시카리 만[石狩灣]과 접한다. '오타루'란 '모래가 많은 바닷가'를 뜻하는 아이누어 '오타루나이'에서 따온 것이다.

홋카이도 서해안의 거의 중앙, 시리베시 지방의 동쪽에 위치해, 삿포로시 등 4개 시읍면에 접하고 있으며, 동서 약 36킬로미터, 남북 약 20킬로미터로, 시가지의 한편이 일본해에 접해 있으며, 다른 세 방면이 산들에 둘러싸인 비탈이 많아 '사카노마치'[坂の町 : 고개 도시]라고도 불린다.

1872년 최초로 부두를 건설해 상항(商港)으로 홋카이도 개척의 가교구실을 했으며, 1880년 삿포로와 사이에 철도가 개통되어 급속히 발전 하였으며 좋은 천연 항만이 있어 홋카이도에서 하코다테[函館] 다음으로 중요한 항구이며, 홋카이도 서부해안에서 가장 큰 공업 및 상업도시이다.

기후는 한난의 차이가 작은 해양성으로, 봄은 사쿠라와 신록, 여름은 골프나 마린 레저, 가을은 단풍, 겨울은 스키로 사계를 통해서 풍부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

III 주요연수 내용

1. 북해도 구도청사

아까랭가(붉은 벽돌)라는 애칭으로 사랑받는 구도청사는 1888년 도청기사가 설계를 담당한 미국식 네오바르크 양식의 벽돌건물로, 길이61m, 폭36m, 탑정상부까지의 높이 33m로 10층건물과 비슷한 높이이다. 팔각탑은 1873년 미국인 케프론에 의해 세워졌으나 6년 뒤 소실됨. 1886년 홋카이도 도청이 설치되고 초대장관 이와무라 미츠토시가 팔각탑이 없어진걸 아쉬워하여 옥상에 추가로 설립. 1909년 화재로 건물내부가 소실되었으나 붉은벽돌은 큰 손실이 없어서 이듬해 재건하여 1911년 완공. 그 뒤 홋카이도 백년을 기념해(북해도가 일본영토가 된 100주년기념) 1968년 건축당시 모습으로 복원하여 영구보존.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명치시대 서양식 건축물 중에서 이 정도로 뛰어난 건물은 일본 내에서도 보기 드물어 1968년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로 지정 됨.

홋카이도 개척시대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약 250만개의 빨간 벽돌을 사용하였으며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고, 사시사철 녹음이 우거져 홋카이도의 오아시스다. 오래전부터 시민들에게 가장 아끼는 장소로도 뽑힌 적이 있으며, 샷쵸로를 알리는 상징으로서 사진에도 자주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 방문후기

북해도는 오랜 세월 동안 아이누족의 생활 터전이자 자기 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후 홋카이도를 개척한다는 미명하에 일본정부는 아이누족을 무참히 멸족-만약 일본이 지금처럼 세계 최고의 마케팅(이들은 “국가마케팅”이라고 부름)개념이 있었다면, 절대로 아이누족을 멸족시키지 않았을 것이다-시킴으로서 물질문명이라는 하드웨어는 얻었을지 모르나 정신문화라는 소프트웨어는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실질적으로 일본의 문명은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 의 문명개척사와 그 뿌리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의 서부개척 당시의 총포류를 그대로 들여와 아이누족을 섬멸하는데 사용했으니, 지금의 일본인들이나 일본정부는 사라진 아이누족에 대하여 영원한 죄의식과 정서적 빚(명칭과 축제가 유명해지고 발전할수록)을 지고 있는 셈이라 생각된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대하여 문화 우월주의(현지 일본인을 보면서 저렇게 볼 품 없는 민족이 어떻게 우리를 36년 동안 지배했나?)에 빠지다 보니 일본은 탐구에 대상이지, 본 받을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은 일본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본토의 대륙 국가가 아니던가! 문화와 역사가 풍부하고 민족적 자존심이 크디 큰 우리나라가 조금만 마음을 가다듬고 웅비한다면 일본이 심리적으로 걱정하는 열등의식을 현실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들 북해도나 삿포르 시민은 현재 대부분 남에서 이주해온 일본인들이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 소유권 자체가 강탈에 의해 국가를 거쳐 비 합법화 된 것으로서, 진정한 문화국가라 된다면 이 문제도 역시 일본인들이 떠맡아야할 역사청산의 책임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문할 당시에조차 여전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분쟁중인 4개 섬에 대한 반환요구 서명을 받고 있었다.



《 구도청사 전경 및 각 자료실 내부》

2. 삿포르의 이모저모

□ 보행자우선의 교통수단

일본의 교통문제는 널리 알려진 것이지만, 횡단보도를 관찰해보니 차량들의 반응이 놀라웠다. 가는 곳마다 목격했지만 도로에 사람이 들어서면 모든 차량은 움직이지 않는다. 며칠 동안 우리는 삿포르의 자동차들의 경적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다. 차량의 경적은 고속도로나 주차장에서 차량을 대상으로 할 때만 사용하는

것 같았다. 사람에게 경적을 사용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역시도 매우 철학이 담겨있는 교통문화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부러 늦게 건너는 보행자는 없었다. 매우 미안한 표정으로 길을 건너는 중년 여성과 노인들을 여러 번 목격했다.

□ 삿뽀로의 시내조명

삿뽀로 시내의 조명은 문화관광 도시의 분위기에 맞게 대부분 유럽같이 은은한 간접 조명이었다. 요란하고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의 도시가 아니라 그림엽서 같은 은은한 조명이 배경에서 비치는 백열조명이나 형광 물질형 등불에 의한 간접 빛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오도리 공원내부에 있는 공식적 가로등들은 대체로 어두웠다. 아마도 일본의 룩스기준에 의한 것이지는 몰라도 요란하고 밝은 한국의 도시 조명에 익숙한 입장에서는 좀 어둡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도시가 밝기만으로 안전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닌 것은, 시내도심의 골목에는 차량이나 설치물들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아 길가를 보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별로 없었다. 특히 음식점가의 조명은 모두 통일되어 있어 멀리서 보니 정말 멋있게 보였다. 통일된 도시조명은 고객들에게 그 지역의 특색을 확실히 인지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 결국 오도리 공원에 수 백만명의 관광객들이 오는 2차적 조건(1차적 조건은 도시인프라)은 눈과 빛이나 음악 등의 연출효과 때문이지 좋은 물건이나 멋진 도시 조형물이나 건물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이다.

□ 친절보다 무서운 일본인의 서비스 정신

하루 종일 밖에 서서 초코렛 나눠 주는 점원 할아버지, 하루 종일 밖에서 관광객들에게 극진히 안내하는 문화재 관리인, 한겨울에도 택시문을 열어 놓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택시기사, 수 백 미터를 달려와 전철 이용을 안내해 주는 전철역사 여직원,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음식을 날라 주는 음식점 종업원... 그들은 손님을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손님에게 정말로 신하처럼 대하는 일본의 서비스 정신은 신기함을 넘어 살벌한 느낌을 들게 한다. 차분함과 잔인함의 양면성을 가진 민족이지만, 도시와 국가를 위한 것은 결국 마케팅에 달려있다는 공통인식이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역할론 속에 일본인들을 하나의 기계부품처럼

세뇌시켜(좋은 의미로)놓은 것이다.

□ 일본의 國鳥(국조), 도시의 까마귀들

삿쵸로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들었던 새소리는 까마귀 울음 소리였다. 낮은 저음에 한국의 까마귀보다 두 배는 커 보이는 까마귀들은 일본의 상징인 국조다. 일본 전역에서 서식하는 까마귀는 지능이 매우 뛰어나, 주거지에서 옷걸이를 물어다 전기 줄에 걸어놓고 집을 짓는 바람에 단전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한다. 우리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시내 어디서나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에 처음에는 삿쵸로시 가혹시 모든 건물이나 관광지마다 국조인 까마귀 소리를 틀어놓고 일부러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한결 같이 같은 음식에 같은 톤의 소리가 어디가나 똑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서나 나타나는 커다란 까마귀들을 보고 스피커 소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 지독한 섬나라 짬돌이들

우리가 머무른 죠잔케이 호텔, 그러나 호텔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장식과 시설과는 거리가 멀었다. 냇가의 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삿쵸로의 그 흔한 물도 수천원의 돈을 내야만 마실 수 있고, 100볼트를 쓰는 일본호텔에서 콘센트하나 준비해 주지 않았다. 그 천 원 짜리 변형 플러그를 객실 전체에 비치해 놓는다고 해도 불과 십 여 만원 이면 될 텐데도 말이다. 지독한 실용주의인지 지독한 장삿 속인지 알 수가 없다. 치약도 한번 짜면 없어지는 갓난 아기 손가락만한 것을 놓고 간다. 기가 막힌 절약정신을 가진 섬사람들이다. 대동아 전쟁이 끝난 지 72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전쟁 속에서 가난하게 허덕이던 일본인들의 가난한 삶의 정신은 이곳 호텔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일본의 음식점에서 추가분에 대하여 돈을 받는 것은 절약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국인들을 추가분을 거의 먹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다 먹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식당에서 음식이 버려지는 음식이 30%~40%를 넘고 있으니, 일본인들의 기준에서 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문화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낭비인 것이다. 일본의 식당은 부지런히 가져오고 부지런히 가져간다는 점이다. 배추김치는 절약하다 못해 아예 "배추깍두기"를 만들어 채를 썰어서 서너 쪽을 겨우 갖다 놓는다. 아마도 한국인들만이 겪는 동질문화권 속에서의 이질감일 것이다. 아예 음식을 들고 먹는 햄버거나 꼬치나 음료류나 빵이야 그럴 리가 없겠지만 말이다.

3. 오도리 공원

오도리 공원은 그 유명한 눈축제(유키마츠리)가 열리는 곳이다. 길이 1.5km, 폭 65~105m나 되는 이 공원은 그린벨트의 산책로이며, 일년 내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78,901㎡에 이르는 넓은 공원에 약 5,000그루의 다양한 수목이 자란다. 가장 멋진 계절은 공원 주변에 수많은 전구가 빛나는 '화이트 일루미네이션(White Illumination)'과 삿포로의 대표 축제인 '유키마츠리(눈축제)'가 열리는 겨울이라고 한다.

오도리 공원 주변은 수령 100년~150년이 되는 장미와 활엽수종의 나무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자라난 지역으로서, 자연 생태적으로는 공원의 핵심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삿포로역 으로부터 동서축으로 중심가 대부분을 관통하는 오도리공원 지역은 길다란 타원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보행자들과 교통, 행정, 고급 대형 상권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또한 지하로는 남북 종단 광역전철과 연계된 도심 전철, 거대한 지하상가, 지상의 보행자천국(차 없는거리)과 보행자 우선의 신호 체계, 그리고 루미나리에(일루미네이션)으로 상징되는 도시조형 야경과 도심경관의 꽃이라 불리워지는 간판의 규격화 등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오도리 공원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면 오도리 공원 중심부분은 철저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스템이나 외곽의 상점가 지역은 차량의 통행과 함께 통합주차권 제도를 도입 하여 언제든지 상점가진흥조합 회원사의 주차장을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당국이나 상점가 진흥조합 간부들의 말에 의하면, 주차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마도 이 문제는 행정당국이 법적인 제도와 함께 공동운영개념으로 상점진흥조합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강력한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 되었다.

회원을 모아 단체(조합)을 만들고 운영비를 모아 축제를 열고, 기업이 광고 협찬하여 공원의 예술조경을 만들고 보행자가 다니기 편하게 자동차가 기다려주고,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게 도로 설치물들을 모두 가변형으로 하고, 어차피 서 있는 나무를 이용해 예쁜 추리를 걸어놓고, 공동주차권을 발행하여 고객의 주차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간단한 문제가 한국으로 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내 것이 우선이다. 남들은 오직 경쟁의 대상이요, 따먹어야 할 영업의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공공성을 훼손시키고 행정부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신속히 추진할 수 없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고 더 나아가 일할 의지조차 꺾어 버리는 결과가 된다.

공공성은 합리적 강제성을 반드시 수반해야만 한다. 한 개인의 이기성 민원전화에도 절절 매는 행정부가, 아니 우리들이, 과연 이러한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적 순리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알고 보면 해답은 보이지만, 그럴수록 불필요한 과정과 방법에 머리만 복잡해진다. 문제는 행정당국의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이다. 결국 한사람의 의견과 주장은 일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삿포로시 조명과 오도리공원》

4. 오타루의 이모저모

□ 문화 예술의 도시 오타루

일본인이 생각하는 [오타루], 홋카이도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다. 금융기관도 도심지에 집중되고 있어 한때 [북쪽 월 스트리트]라고 불려질 만큼 이국정서가 넘치는 역사와 로맨스의 도시다. 과거 청어잡이로 부흥해 홋카이도 정도로 영화를 누렸던 도시. 지금도 시내에는 유럽형 석조건물이나 오래된 일본 건축 등, 역사적 건축물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오타로시는 삿포로 눈 축제로 인하여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도시 중 하나이다. 삿포로시가 들어서고 과거의 명성이 쇠퇴해진 오타로시는 은행과 상점, 창고와 부둣가의 수로까지를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여 유럽의 모던한 분위기를 느끼는 친근감 있는 관광지로 변모시켰다, 과거의 벽돌창고가 멋진 유리공예품을 파는 기념품 가게로 변하고, 돌로 지은 과거의 은행건물은 미술품을 전시하는 명소로 변하여 관광상품과 조형적 매칭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내고 있었다.

□ 오타루시의 관광마인드

삿포로시에서 북동쪽으로 40여분 거리에 있는 오타루시는 마치 새벽 잠에서 깨어난 아가씨같이 순수하면서도 아늑하고 평화롭다. 유럽 같기도 하고 장난감 거리 같기도 하고 셋트장 같기도 하다. 중국, 러시아, 독일, 미국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모여들고 있었다. 관광버스 약 20여대가 주차장을 메우고 있었다. 사탕 가게, 초콜릿 가게, 과자가게, 장난감 가게, 인형가게, 비스킷 가게, 유리공예품 가게, 미술관, 빵 가게, 찻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오래된 건물들을 헐어버리지 않고 역사적 가치로 승화 시키는 것을 보았다. 결국 앞선 생각을 가진 사람의 의지가 모두를 이해시켜 나간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허름한 시멘트 블록으로 만들어진 옛 건물을 미술관으로 활용한다던가, 오래된 대리석 은행건물을 활용해 품격을 높인다던가, 유럽의 문화와 철학적 모더니즘까지도 관광부가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 오타로시의 문화콘텐츠 개발 능력이 부럽기만 하다.

오타로시의 무엇이 사람들에게(특히 여자 관광객들에게) 그러한 매력을 줄까..? 그러나 거기서도 해답은 오래된 것을 잘 간직하여 현대적 마케팅과 접목해 나가는

것이였다. 모든 도시의 방문자들을 자신의 환경에서 보지 못한 것들과 듣지 못한 소리와 격어보지 못한 분위기에 몰입 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 그렇게 사람의 취향을 맞춘다면 그곳에서 파는 물건이 가격이 얼마가 되든 판매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 또 하나 관광콘텐츠 개발적 시각에서 본다면 오타로시는 철저한 관광기획이 만들어내는 문화지대였다.



오타루시 도서관



오타루시청

오타루시 수도국

5. 오타루운하

《오타루운하 현황》

- 길 이 : 1,140m, 폭 20~40m
- 건 설 비 : 19만 6천엔(건설당시)
- 선박들의 하역작업을 위해 1914년부터 1923년까지 건설
- 1896년 운하 주위를 산책로로 정비하면서 오타루 대표관광지로 탈바꿈
- 바다를 매립하여 조성 된 부채형의 완만한 곡선

오타루의 [얼굴]은 바로 오타루 운하. 조용한 운하와 오래된 석조창고들... 밤이 되면 가스등불이 점등되어 운하 전체가 라이트업 된다. 낮과 밤, 여름과 겨울, 오타루 운하는 사계절 각각의 따뜻하고도 로맨틱한 표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홋카이도의 거점 무역항으로 발전한 오타루는 선박들의 화물 하선 작업을 위해 1914년부터 1923년까지 운하를 건설했다. 길이는 1.3km, 폭은 40m이다. 선박들이 드나들던 운하는 1986년에 운하 주위에 산책로를 정비하면서 오타루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탈바꿈했다. 밤이면 이국적인 야경이 펼쳐진다. 주위에는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고급 레스토랑, 유리 공예관, 골동품 매장 등이 있다.



《오타루 운하와 야경》

6. 삿뽀로 맥주박물관

삿뽀로맥주의 역사와 원료, 제조 공정 등을 이해하기 쉽게 영상으로 전시해 놓은 박물관이며 일본에서는 유일한 맥주박물관이다. 1987년 7월에 개관하였고 일반에게는 2004년부터 공개되었다. 박물관 건물은 1890년에 지어졌는데 당시에는 제당회사의 공장이었다. 삿뽀로 맥주의 역사는 1876년 독일 베를린에서 맥주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돌아온 나카가와 세이베이를 통해 이곳에 양조장이 들어서면서 부터 시작되었다. 이듬해 북극성을 상징하는 붉은색 별을 라벨 문양으로 삿뽀로 맥주가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박물관 건물은 붉은색 벽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구(舊) 홋카이도청사와 함께 메이지시대의 영향이 남아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다.

삿뽀로시의 철저한 마케팅 전략에 의해 거의 필수코스로 오게 되어 있는 이 삿뽀로 맥주공장은 현재 최신의 생산시설로 맥주의 맛만 내는 최저가의 효모주로부터 삿뽀로 생맥주에 이르기까지 몇 종류의 병과 캔맥주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무엇보다 인상 깊은 것은 공장가동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료를 출입구 뒀에 전시하여 나름대로 삿뽀로 맥주에 대한 역사와 전통을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이미지 브랜드화 전략이다. 별것도 아닌 것을 사진촬영도 못하게 하고 말로도 엄청난 포장을 한다. 박물관 우측 삿뽀로맥주원에서는 방문자들에게 시음의 기회도 제공 한다가에 공짜인줄 알았는데 유료(한잔 시키면 안주는 무료)였다. 일정 시간동안 발효 후, 세라믹 필터로 걸러내는 삿뽀로생맥주는 우리나라의 맥주보다는 맛이 떨어지지만(나라별로 주관적인 판단 일테지만..) 역시 다른 사람들도 맛에 대하여는 별로 반응이 없었다. 문제는 홍보 문구로의 포장이었다. 지독한 독주에 익숙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싱거운 삿뽀로 맥주는 미미한 수돗물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았다. 미소를 띠며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이견

술도 아니다. 자기나라 술이 최고라는 의미다.

박물관 주변 도로도 컨셉은 전부 맥주박물관에 맞춰져 있었으며 조형물도 맥주 제조와 관련된 조형물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맥주 박물관 외부전경



맥주 박물관 내부전경

7. 노보리벳츠 지옥계곡

일본은 수 천개의 자연온천이 널려있다. 북해도가 자랑하는 **3대 온천**인 노보리벳츠, 조잔케이, 기타유자와 온천 가운데 **노보리벳츠** 온천은 북해도를 대표하는 일본 최고의 온천으로 유황온천에서 대자연의 절경을 바라보며 휴식을 즐기실 수 있으며, 피부의 탄력을 유지시켜 주는 콜라겐 기능이 함유되어 있어서 휴식과 더불어 피부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인 곳이다. 노보리벳츠에서 빠질수 없는 **지옥온천**

관광은 온통 유황냄새로 진동을 한다.

날씨라도 궂은 날이면 대낮에도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는 지옥계곡은 유황에 빛이 바랜 절벽의 색깔이 어우러져 마치 지옥에 와 있는 듯 하다고 해서 지옥계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지옥온천을 공원화시켜서 산책로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었다.

참 아이러니 한 것은 이런 화산 때문에 일본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가 하면 또 이런 화산 덕분에 관광객들을 많이 불러들여 돈을 벌기도 하지 않은가.....



《 지옥계곡 전경 》

8. 도야 호수

도야코(洞爺湖)는 화산활동으로 생겨난 곳에 물이 고여서 생긴 표고83m 둘레 43km 평균수심이117m에 이르는 **백두산 천지와 같은 칼데라호**이며, 호수중앙에는 나카지마섬(4개의섬을 통칭해서)이 있고 호수 주변에는 분화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소화신산(照和新山), 우스산(有珠山)이 솟아있으며 북쪽으로는 요테이산(羊蹄山 893m)의 설경이 솟아있어 경관이 아름다우며 호수에서 유람선을 타고 주변경관을 감상 하고 밤에는 불꽃놀이가 장관인 **북해도 3경중 한곳**이다. 일명 **도나스** 모양의 호수라고도 한다.

호수는 겨울에도 결빙되는 일이 없으며, 일본에서도 최북단의 부동호(不凍湖)로 일년 내내 아름다운 물을 담고 있다. 호수에 떠있는 나카지마 섬에는 도야 호 삼림박물관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각시송어와 빙어낚시를 즐길 수도 있다.



《 도야호수 전경 및 유람선 》

IV. 연수후기

일본 북해도 일원 문화 · 관광지역을 둘러보고

2012년 서대문구의회 일본연수 단장 홍 길 식

이번 국외연수는 문화관광에 좀 더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따로 실시하였다. 단출 한 인원이 간다는 것 감안하여 좀 더 자유롭게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욕심을 냈지만 예산운용의 성격상 한정 된 경비와 짧은 일정으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실시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다. 하지만 국외연수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의회일정에 늘 쫓기 다시피한 현실에서 그나마 주어진 시간동안 많은 온전히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우리도 50년 뒤에는 외국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추억의 도시로 만드는 일을 시작

해야 한다!.

한마디로 삿뽀로는 관광도시이다. 외국인들이 영업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며, 전철을 타기위해 오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자기 나라가 더 화려한 축제를 보기 위함만도 아니다. 삿뽀로는 추운 겨울이 되어도 도시의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다양한 재미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세계와 어울리려는 열린 마인드와 세계를 향한 공무원들의 앞선 생각과 이를 이해하는 민간조직이 있기 에 가능하다 생각되어진다. 삿뽀로 눈 축제의 자원봉사를 위해 줄을 서서 선택 되기를 기다리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매년 40~50명을 뽑는 삿뽀로 눈 축제는 이처럼 모두가 참여하는 어울림의 공간이자 세계인들의 가슴 속에 삶의 이유와 인생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삿뽀로는 그러한 값 비싼 아이템을 제공하는 산실이며, 그것을 통해서 지역민들과 국민들에게 생활의 풍요로움을 선사하는 것 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터 우러나오는 것 같은 친절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가장 값진 선물인 것이다.

단순한 관광축제인 "삿뽀로 눈 축제"에 일본의 핵심 정책부서인 국제 교류부, 시민교류부, 경제진흥국, 관광국이 모두 참여하여 오도리 상점가진흥회와 중심상가 활성화협의회 등의 조직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성하는 것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다.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상가주와 업주를 방치하고 결코 상권의 활성화는 이루어 질수 없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자신의 업소의 이익만 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이해시키고 자료를 만들어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오도리 공원에서 우리가 배워 나가야 할 것들이다.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 모두가 삿뽀로의 오늘을 역사 속에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한 무리의 중학생들이 축제를 벌였던 것이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축제가 되었다. 그것은 평범한 것이었으며, 아주 보잘 것 없는 아이들만의 장난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게 되었고 참여하게 되었고 아이디어를 모아 돈이 되는 가능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이 세상 최고의 물질적 가치기준은 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 돈을 추구하면 물질적 가치는 사라진다. 문화와 예술, 환상

과 꿈들이 환경과 국가와 민족을 초월할 때, 비로소 가장 많은 물질과 부를 축적하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때론 외롭고 고통스런 결단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 고통을 비켜 나간다면 우리들의 행복은 없다. 이 세상의 모든 기득권들과 부와 명예들과 우리들은 늘 건전한 투쟁을 하여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를 살찌우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남겨주고, 역사를 창조해 나갈 원동력을 만들게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이번 연수단 일원으로 참가하며 녹록치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기돈 의원님, 백인기 의원님, 윤유현 의원님과 수행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우리 의원들의 지식이 형무소역사관, 독립문 등 문화자원이 많은 우리 서대문구의 문화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이다.